

# 삶의 현장서 함께 부대끼고 깨우치다

## 2017 文化로 물들다

### 6 광주시민인문학

2014년 8월 출발...실천 인문학 지향  
월~금 정기 강좌, 주말엔 세미 강좌  
강의실 밖 답사·다양한 취미 활동도



2014년 여름 광주 푸른길에서 진행된 '푸른길 인문학'에서 명혜영 광주시민인문학 이사장이 시민들 대 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광주시민인문학 제공>

지난 1월 중순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 20대 대학생, 중년의 여성, 퇴직한 60대 남성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른 저녁을 먹고 나온 이들은 오래 전부터 알아온 지인처럼 친근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올해 광주시민인문학이 개설한 첫 강좌에 참석한 수강생과 시민들이었다. 나이와 직업, 사는 곳은 각기 다르지만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인문학'을 매개로 서로를 알아가고 공동체 일원으로 무엇이 인간다운 삶이고 행위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어느덧 경쟁과 효율로 대변되는 생존이 놓여 있을 뿐 존재 자체에 대한 행복과 기쁨은 사라진지 오래다. 존재 자체가 행복이며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잇는 채 앞으로만 내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광주시민인문학이 태동한 이유는 이러한 실정과 무관치 않다. 당초 2012년 10월 전남대 비정규교수들이 결성한 인문학 커뮤니티 '생생공감의 무등지성'에서 비롯됐다. 인문 정신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의미를 삶에서 실현하자는 모토로 다양한 강좌가 개설됐다.

이후 이 모임은 '광주시민인문학'과 '인문지행'으로 갈리며 세분화된다. 회원간 전공 분야의 상이점과 지향점의 차이로 각자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이후 '광주시민인문학'은 2014년 8월 명혜영 박사, 심영의 박사 그리고 공무원, 직장인, 주부 등 각계각층 30여 명의 회원들로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전남대 정문 앞에 인문학 카페 노블(Novel)을 개설해 강의실 겸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왔다.

"리얼리티(실천) 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은 토론인문학을 통해 자유정신을 함양하고 공동체 감각을 발군

하며 '인문적 통찰과 미학적 승화'라는 가치창조에 앞장선다." 광주시민인문학은 강단에 머무는 학문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는 학문, 대학을 벗어나 대학 밖에서 대안을 꿈꾸는 학문공동체를 추구한다. 또한 구체적인 일상에 대한 가치 부여, 인문적 통찰과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을 지향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강좌와 강의 주제 개발에 역점을 뒀다.

명혜영 이사장은 "인문학 열풍은 웰빙(well-being)으로 건강해진 몸의 호응이라 생각한다.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터득하고, 타인에게 과도로 의존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기도 한다"며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지금, 여기'를 사는 용기 등을 깨닫는 것은 그 자체로 행복"이라고 말했다.

시민들과 함께 한 강사들도 대부분 관련 분야 박사학위소지자와 청년 퇴임한 명

예교수들이다. 강사진으로는 명혜영(한일 비교문학), 심영의(국문학), 구효경(시인), 이재연(경제학), 위상복(독일철학), 김미자(국문학), 이진(국문학), 안정선(심리학), 박주희(교육철학), 안철(클래식음악 해설가), 최창근(국문학), 이영란(중국역사), 강경필(서양철학), 조우진(동양철학), 서명원(영미철학), 이현기(연극학), 조상현(한국사) 등이다.

지금까지 39회째 정기 강좌를 이끌어오 는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된 정기 강좌, 주말에 진행된 세미강좌 등이 텍스트를 함께 읽고 사유를 확장하는 시간이라면 주말에는 취미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상 자극자극 프로젝트와 인문여행은 강의 실 밖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예능과 관련한 특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1인 1악기 도전 프로젝트',

'사진작가 되기' 등이 그 예다. 특별초청 강연도 시민인문학이 수행해온 의미있는 성과 중의 하나다. '광주항쟁과 파리코뮌' 주제로 프랑수아즈 바지호 파리코뮌의 친구들협회 사무총장이 강연을 하기도 했다.

다양한 인문학 수요에 맞춰 주제와 장소를 달리한 강연도 인기를 끌었다. '열려라 대학', '게릴라 인문학', '거리 인문학', '시장 인문학', '통일 인문학', '세태공감 인문학' 등이 그것이다.

정중의 조합원은 "진정한 학문 공동체를 찾다가 건강한 가치에 동의하고 구성원들에게 공감할 수 있어 그 뜻을 공유하고 자 협동조합에 참여했다"며 "지금까지 높은 수준의 강좌와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인문세상을 성찰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인문정신으로 더욱 성숙한 광주시민인문학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된 프로그램도 알차고 다양하다. 12월까지 12번의 정기 강좌를 비롯해 3월~4월 롯데, 신세계백화점 문화센터 아카데미가 진행되며 4월~12월에는 문체부 주관 인생나눔교실 인문학 멘토링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도서서 '길 위의 인문학', '찾아가는 인문학', '인문학 콘서트'가 계획돼 있으며 '인문여행'으로 12회의 남도기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외인문연수로 일본 연수를 실시하고 '일상자극자극프로젝트' 일환으로 연극과 미술관 관람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1일부터 28일까지 40기 강좌가 인문학카페 노블에서 펼쳐진다. '중국역사', '동양철학', '비교문학', '베스트셀러 읽기' 등의 정기 강좌와 '무비토크', '인문여행' 등의 세미강좌가 진행된다. 참가비 대학생 1만원, 조합원 2만원, 일반회원 3만원.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은 토론과 강연 외에도 정기적인 답사와 인문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사진은 2015년 봄 전주시청 앞에서 포즈를 취한 회원들.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 예향 2월호



### 뿌리의 정신, 종가를 다시 본다

서민 교수의 흥미진진한 기생충 이야기

전남 도내 종가(宗家)는 모두 34곳. 이들 가문의 종손(宗孫)과 종부(宗婦)는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나름의 전통문화와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불천위'(不遷位=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도덕성과 학문이 높으신 분에 대해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에 영구히 두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위) 제사를 지내는 독특한 문화가 대표적이다.

광주일보에서 발행하는 문화예술 매거진 '예향(사진)' 2월호는 특집으로 '탐욕이 율바름의 덕목 흔드는 시대, 종가를 다시 본다'를 다뤘다. 국장농단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때,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나눔을 실천한 종가의 정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 김씨 문정공 김인후 대종가와 장흥 고씨 의열공과 종가를 찾아 대대로 내려오는 정신과 가치, 새로운 콘텐츠 가능성 등 여러모로 조명했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기생충 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서민(52)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 교수를 만났다. 남들이 가지 않는 분야를 연구하고, 유머러스 하면서 풍자적인 시사 칼럼으로 이름을 날리는 서 교수를 만나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송기용기자 song@

테마기획 '국가어항(漁港)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는 영광 계마항을 찾아 간다. 국가어항으로 발돋움해 옛 영화를 찾으려 하는 계마항을 찾아 생생한 바다현장과 인근 백제 불교도래지 등을 소개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가양주(家釀酒)인 전주 이강주(梨薑酒)를 부활시키고 문화재로 등록시킨 조정형 명인을 만나 본다. '조선시대 3대 명주' 중의 하나로 꼽히는 이강주를 세계 명주의 반열에 올릴 속성주로 만들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는 조 명인으로부터 전통주의 매력에 대해 들었다.

'남도 미미락(美味樂)에서는 '문림의향(文林義鄉)으로 불리는 장흥을 찾았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과 장흥 우드랜드, 장흥 한우 삼합, 바지락 회무침 등 장흥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꼼꼼하게 살펴봤다. '소문난 예술 교육 현장'에서는 영국 빅토리아&앨버트 미술관을 소개한다.

이 밖에도 배국남 대중문화 평론가 '연예인 정말 무식할까?'를 비롯해 정운수 한신대 교수의 '잇달린 운명과 닮은 음악, 밥 딜런과 빅토르 하라', 노중훈 여행작가의 '실용적이면서 예술적인 디자인의 나라, 스웨덴' 등 읽을거리가 풍부하다. /송기용기자 song@

###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 222-0072, 226-5800 (다, 카톨릭센터 뒤 관현악관 18)

**아프리카 신나조각**  
양근리전시회  
- 500여점 전시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